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5. 4. 20.(일) 11:00,
(지면) 2025. 4. 21.(월) 조간

배포 2025. 4. 18.(금) 오후

‘재난관리는 협업이 열쇠’...해양수산부, 재난대응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 개최

- 4.21~30 기간 전국 5개 권역에서 소속기관, 지자체 등 113개 기관 참여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4월 21일(월)부터 30일(수)까지 전국 5개 지역*에서 ‘해양수산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합동 연수회(워크숍)’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부산(4.21), 광주(4.23), 인천(4.25), 강릉(4.28), 대전(4.30)

해양수산부는 선박사고, 대규모 해양오염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, 소속 기관,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.

이번 연수회에는 총 113개 기관에서 참여*할 예정으로, ▲국가재난관리 체계와 위기관리 매뉴얼 이해, ▲지진·해일, 선박사고 등 주요 재난 대응 요령·사례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

* 지방해양수산청, 해양경찰청, 광역기초 자치단체, 항만공사, 수협, 해양환경공단 등 300여 명

아울러, ‘한국 문학과 재난의 상상력’, ‘재난 앞에 하나 되기’ 등 재난분야 교양 강의를 통해 재난관리 업무의 가치와 의의를 되새길 예정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재난 대응에 있어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은 매우 중요하다.”라고 말하며, “이번 연수회를 계기로 담당자의 업무 역량은 물론, 해양수산 분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<담당>	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	책임자	과 장	이민중 (044-200-5850)
		담당자	사무관	정소희 (044-200-5857)